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계업과 탄핵 그리고 대선의 1년이다. 한 해에 한 번 있을까 싶은 정치 사건의 연속이었고 그 여파로 민주주의 위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난 1년은 정치 실패의 가장 나쁜 결과다. 정치의 실패는 갈등 조정 능력의 상실과 소통 단절 그리고 양극화의 극단화를 말한다. 대한민국 공동체 공론장의 완전한 붕괴로 여야는 각자의 에코 챔버(echo chamber) 속에서만 목소리를 계속 높인다. 여야가 정책 경쟁보다는 진영 논리와 반사이익의 정치에 몰두한다.

1년은 '위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위기'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의 후퇴와 역행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이 민주주의의 규범과 제도를 서서히 악화시키고 결국 파괴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완벽한 민주주의로 평가 받아온 우리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최근 전 세계적인 독재화 경향의 한국적 결과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태롭고 그래서 시민의 비판과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치의 실패는 정당 실패의 산물이다. 정당의 게이트 키퍼(문기지) 기능 부전과 당내 민주주의 붕괴 그리고 정책 능력의 상실 등이 정치 실패의 입구이자 필요 조건이다. 정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당이 민주주의 역전을 가속화 하는

선호투표제 내년 지방선거부터 실시하자

주체가 된 것이다. 공동체 붕괴는 물론 현정 위기와 위임 민주주의의 권력 실패로 이어지는 정치 실패의 출발점이 바로 정당의 실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양극화의 주범이자 동시에 수혜자다. 이념적 양극화는 '회피와 배제'의 정서적 양극화로 악화됐다. 양당의 여론 여과 기능은 사라지고 소수의 강경론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결국 정당은 시민 대표성을 상실한다.

민주당의 '1인 1표제' 국민의힘의 '당심 70% 경선률' 논란은 정당 회복 및 정상화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당원 주권주의'와 '당원 권한 강화'를 각각 명분으로 하지만 속내는 소수의 강성 당심을 더 강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표성 악화와 정당성 위협 그리고 중도적 민심 이탈의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그 같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정당 실패를 넘어 좀비 정당이 되는 것이다. 좀비 정당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기능과 영향력을 상실한 정당이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며 정책 경쟁력도 상실하여 결국 공동체 통합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는 정당이다. 정당이 시민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현상은 카르텔 정당으로도 설명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적대적 공생의 카르텔'의 극단화된 경우다. 양당이 겉으로는 서로 공격하면서도 양당 모두 기존 정치 질서의 유지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적대적 공존의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은 정치자금과 정당법이다. 둘다 입법 사항으로 양당이 결정하고 언제나 만장일치다. 양당 전체 정치자금의 절반 이상은 우리가 낸 세금이다. '중양당은 수도에 둔다'는 정당법은 지역 기반 신

생 정당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정치 복원이 정당 회복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좀비 정당의 적대적 카르텔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한 정당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치자금과 정당법으로 지탱되는 양당 독점 카르텔 정치 구조의 핵심인 '단순 다수+소선거구제 선거제도' 개혁이 결정적이다. 국회 구성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적대적 공존의 양당 카르텔 독점 정치의 반대편은 다당제 정치다.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만큼 의석으로 전환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득표율 50.6%로 161석(63.4%)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득표율 45.1%로 90석(35.4%)을 얻었다.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심각한 고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주의'가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대목이다. 그의 국정과제 개헌 완성도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해야 성공이 보장된다. '이재명 진정성'의 시험대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치른다. 전북 순창군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광역의원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특례설시 종료 등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국회는 아직 정치개혁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시도의원 선거구의 광역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실험은 실패했다. 남은 대안 중 선호투표제가 합리적이다. 좀비 정당들의 적대적 공존 카르텔 구조의 해체가 정치와 권력 그리고 공동체 성공의 지름길이다. 다당제 정치의 실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시범 실시하자.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온나고교회 담임목사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은 2000년 전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오심(초임)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며 마음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조선 후기 과학 기술의 정수가 담긴 수원화성과 그 기록서인 '수원성역의궤'에 대해 알게 되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을 떠올려보면 이집트의 파라미드나 양코르와트처럼 수천 년의 시간을 버텨온 경이로운 유산들이 있다. 우리는 그 거대한 규모에 감탄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지었는지 알지 못해 그것들을 신비의 영역에 남겨둔다. 만약 이 건축물을 짓는 과정과 과학적 비법이 '수원성역의궤'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졌다면 우리는 그 건축가들의 천재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 유산들은 신비로운 불가사의가 아닌 위대한 기술적 성취로 남아있을 것이다.

수원화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대부분 훼손되었지만 죽성의 모든 과정과 도면, 사용된 자재, 심지어 참여한 인력과 품삯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대림절, 신앙 복원의 시간

'수원성역의궤'라는 완벽한 기록물 덕분에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 이 완벽한 기록이 있었기에 훼손된 성곽은 원형을 거의 그대로 회복하며 진정성을 인정받아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록의 힘은 우리가 사는 지역의 유산과 대비될 때 더욱 절실히 다가온다. 광주의 옛 도심에는 조선시대 광주읍성과 그 사대문(진남문, 공북문 등)이 있었지만 수원화성처럼 복원되지 못하고 그 흔적만 남아 있다.

필자가 고교시절 지냈던 전주에도 읍성의 남문인 풍남문이 웅장하게 복원되었지만 수원화성처럼 죽성 전 과정을 담은 완벽한 의궤를 근거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복원의 진정성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기록이 사라지거나 복원의 근거가 불완전할 때 그 유산은 진정한 원형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런 사례는 오늘날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던져준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물이 훼손되거나 세상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진 후에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궤는 바로 성경,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사역이 기록된 영원한 보고서이며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확실한 삶의 설계도이다. 이 기록은 단순히 교훈이나 철학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완벽

하고 불변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대림절은 단순히 과거의 성탄을 축하하는 절기가 아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이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재건축하는 시간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요한복음 13:15)고 말씀하셨다. 복원된 수원화성이 진정성을 인정받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삶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만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 된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완벽한 기록을 근거로 삼아 삶을 재건하고 복원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의 삶의 증거로 대립절이야 말로 신앙을 복원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모습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우리의 신앙 의궤에 기록되는 내용이다. 예수님이 사랑, 겸손, 섬김 그리고 희생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재건축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대림절은 기다림을 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천으로 가득 차워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립절이야 말로 신앙을 복원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겠다.

긴 여정의 삶을 뒤돌아보며

숙해진 고정관념으로 따라가기엔 벽찬 세상이기에 격세지감을 느낀다.

모든 것이 편한 세상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컴맹에겐 어렵고 불편한 세상이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청맹(靑盲)과나가 되는 세상이다. 최근 들어 예의범절이란 단어는 고대 사전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고 돌, 백일, 생일, 장례 등 집안에서 했던 크고 작은 행사는 이젠 볼 수 없는 풍경이 되어버렸다.

1970년대만 하여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날아 잘 기르자'라고 하여 산아제한을 하였는데 지금은 저출산 시대가 되어 인구 소멸위기에 있다고 한다. '3포시대' 즉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개인주의와 편의주의로 살아가고 있으며 충효사상과 예의범절이 소멸되어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 세대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생활하고 언어는 외래어, 신조어, 축약어 등을 사용하고 있기에 대화가 잘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하기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본다. 2023년 8월 6일 미국에서 발간되는 U.S 뉴스에서 세계 10대 강국 순위를 발표했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 6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했다고 한다. 강대국의 순위를 정한 기준으로는 첫째는 외교정책의 영향력, 둘째는 국방예산, 셋째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

향, 넷째는 지도자, 다섯째는 강력한 군사 동맹 등 이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위를 매긴 기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제치고 6위에 올랐다.

또한 대한민국을 6위로 선정한 기준은 첫째로 군사력, 둘째는 최근의 무기수출로 드러나는 방위산업, 셋째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력, 넷째는 미디어 콘텐츠 패권, 다섯째는 최강 미국과 완벽한 군사동맹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간 미국의 할리우드가 독점하고 있던 문화에 대한 영향력을 이전 코리아가 세계적 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글이 세계 문자 유통피라미드에서 제1회와 2회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필요한 글자를 만드는 자주(自主)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愛民)정신, 널리 글을 알려 사람들의 생활을 이롭게 하겠다는 실용(實用)정신이 녹아있다.

이런 훌륭한 한글을 세계만방에 자랑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한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삶이 풍족하고 많은 자유를 누리며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늘어난 수명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컴퓨터, 모바일폰도 열심히 배우고 억혀서 얼마나 남지 않은 세월이지만 젊은이들 눈치만 보지 말고 즐겁고 기쁘게 남은 여생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병오년 새해에는 오직 건강만을 누리면서 힘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社說

역대 최대 국비 확보...먹거리산업 종잣돈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받을 국비도 윤곽이 드러났다. 역대 최대 규모로 광주시는 3조 9497억원, 전남도는 10조 42억원을 확보해 전남의 경우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내용을 보면 미래 먹거리인 첨단 성장동력 산업에 방점이 찍혀있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에 맞게 AI 관련 국비만 1579억원이다. AI 중심도시 2단계 사업인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에 297억원이 배정돼 본 궤도에 오르게 됐고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전용 컴퓨팅센터 구축 용역비도 확보해 국가 컴퓨팅센터를 대체할 기반을 마련했다.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사업비도 충분하게 확보해 도시 전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전남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우주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국비가 핵심이다.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

소 시험시설 사업비 485억원은 고풍 나로우주센터 일원에 발사체 엔진 개발을 위한 인프라와 민간 기업에서 개발중인 다양한 연료 엔진에 투입돼 전남을 우주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지산지소형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사업비로 확보한 1196억원은 1조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의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광주와 전남의 미래는 첨단산업 육성 없이는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떠나는 현실을 개선하는 길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밖에 없다. 지방시대 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자료도 지방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실을 보여줬다. 광주·전남 청년들은 대구·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빠져나갈 정도였다. 내년도 국비가 광주·전남 미래 먹거리산업의 종잣돈 역할을 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를 기대한다.

민생치안 중요성 보여준 청소년 패거리 범죄

최근 광주 북구 신용동 일대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흥흉한 소문에도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SNS상에 청소년 패거리 활기 관련 게시글이 뜨고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달 22일 밤 신용동 일대에서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폭행 당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해 피해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 했지만 소극적인 대응으로 축소 수사 의혹을 받았다. 비판 여론에 경찰이 뒤늦게 가해자를 잡고 보니 중학교 3학년생 2명이었다. 이들은 빼앗은 휴대전화를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판매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청소년들의 범행이라고 하지만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피해자는 부상과 정신적 충격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신용동

無等鼓

타이거즈는 한국시리즈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다. 1983년 첫 우승을 시작으로 1986년부터 1989년에는 4년 연속 '기울잔치' 주인공이 됐다. 1996·1997년 연달아 우승을 차지한 뒤 호랑이는 매서움을 잊었다. 다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까지는 1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10번째 우승은 해태가 아닌 KIA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 재정난에 시달리던 해태 타이거즈는 2001년 8월 KIA 타이거즈가 됐다. 이후 타이거즈는 모기업의 드든한 지원 속에 '한국 시리즈 우승' 역사를 이어갔다. 타이거즈는 2009년 그리고 2017년에도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앞세워 우승 행진을 펼쳤다. 2017년 한국시리즈에서 '만루 사나이'의 면모를 보여준 이범호는 2024년 '초보 감독'으로 12번째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한국시리즈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는 전통은 후배들에게 자부심이자 힘이다. 마법의 주문처럼 선수들은 '불패'를 마음에 새기고 맹수가 된다. 그 전통을 만드는 주역들이 얼마 전 광주에 모였다. KBO리그에서 유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즈 정신'을 외친다.

요즘 야구는 비즈니스가 됐다. 최고의 가치는 돈이 됐다. 유난한 스포츠리그, 그래서 옛 호랑이들의 정겨운 만남이 더 특별하게 보였던지도 모른다. "제발 나에게 기회가 와라"고 빌었다는 강심장들, 죽어도 지지 않았다는 승부사들 그리고 타이거즈로서 행복하다는 이들,